

2013년 2월의 열린강좌/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

# 1부: 미술이란 무엇인가?



미의식이 예술로 탄생되는 과정.

미의식이 예술로 탄생되는 과정의 예

1단계 원초적 욕망 - 식욕, 성욕, 과시욕...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알타미라 동굴 벽화



라스코 동굴 벽화





앙리 루소, <꿈>



마티스, <춤>

2단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 체험과 욕망 - 사회라는 공동체의 틀에 의해 정제되거나 억압된 욕망들.



루시안 프로이드, David with Dog, 2011 unfinished, Oil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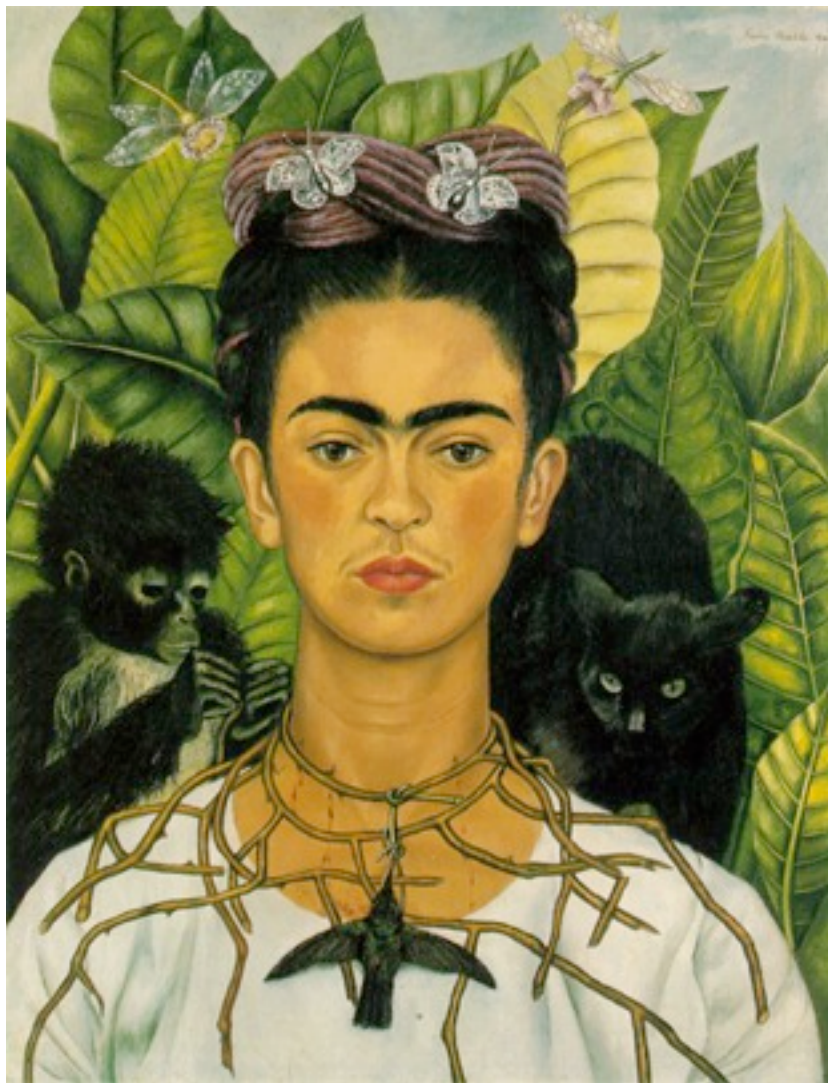


야요이 쿠사마





에드바르 뭉크



프리다 칼로

### 3단계 집단 공동체적 경험과 욕망



크리스 오피리 : 코끼리 똥이라는 소재는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연료. 취사, 난방, 건축 자재로 쓰이는 프로메테우스의 불과 같은 존재. 영국에서 성장한 작가가 자신의 뿌리, 원형을 찾게 된 계기로서의 코끼리 똥. 아프리카와 유럽이라는 두 대륙, 문화 사이의 간극과 갈등을 풀어 놓는 예술.



프란시스 베이컨





신디 셔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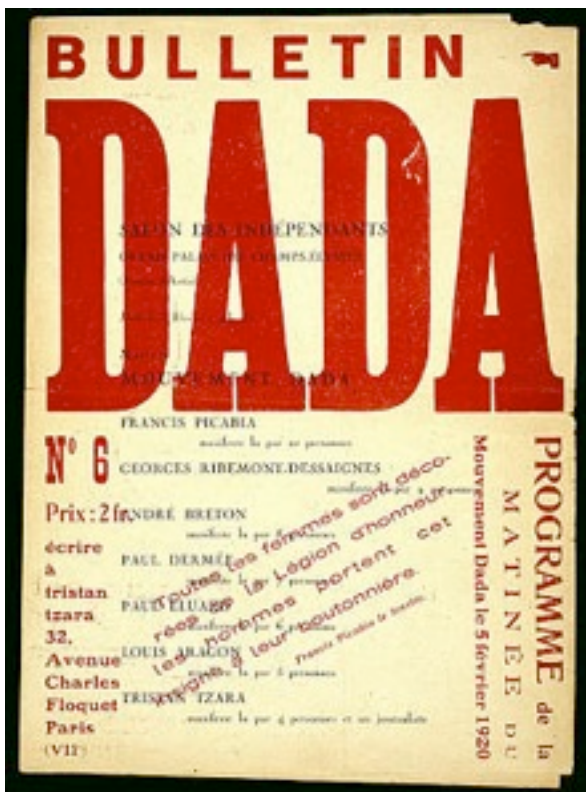


자코메티





헨리 무어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 4단계 신화와 종교, 사회 풍속



라파엘



자크 루이 다비드





디에고 리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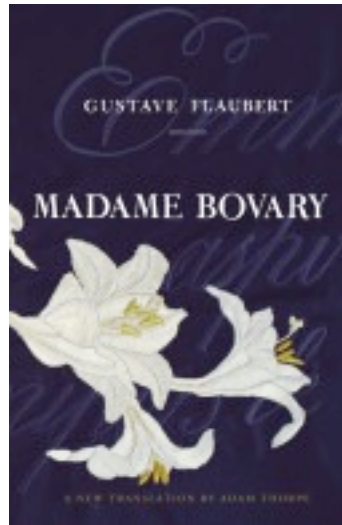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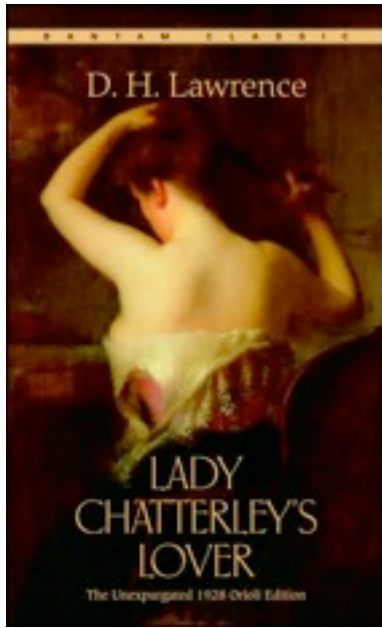
마르셀 뒤상



카라바조 : 성스러운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순례자의 모습.



## 5단계 규칙과 현행법



D. H. Lawrence, 레이디 채털리의 연인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

오시마 나기사, 감각의 제국



춘원 이광수와 미당 서정주



## 가장 근원적인 욕망에서 출발한 삶의 기술로써의 미술

우리 주변에 많은 지식과 학문이 있지만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일상의 지식, 꼭 필요한 지식 중의 하나가 ‘미술’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미술’을 하고 ‘미술 행위’를 합니다. 미술이란 ‘아름다움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름다움을 자신에게 삶에서 추구하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술을 붓이나 펜을 들고 도화지에다 그리고 색을 칠하는 것, 어떤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만 하고 맙니다. 이 기본적인 행위와 연습은 우리가 삶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위한 작은 연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색을 갖고 놀고 선을 다루는 연습이 자신의 선을 만들고 색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입고 사용하는 물건들의 선택은 바로 ‘미술 행위’입니다. 바깥으로 아름답고 멋있고 개성있게 보이기위한 최선의 방법이 효율적인 선택과 착용이고 이것은 평소에 ‘미술에 대한 연습’으로 길러진 ‘미적 행위’입니다. 즉 자신을 위한 미술행위는 이렇게 착용하는 옷이나 사용하는 상품의 선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들고다니는 가방, 신발의 선택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충족하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미적 행위는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꽃이 꽃으로 서있는 까닭도 생존을 위한 본능적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의 다른 식물들과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벌과 나비를 불러모으지 못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작은 들꽃들도 오랜 시간을 투자해 처절하게 진화를 모색하며 아름다움으로 무장합니다. 아카시아나 라일락 같은 색이 없는 식물은 향기로 무장하고 민들레 같은 작은 꽃들은 항상 모여서 합친 힘으로 나비와 벌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식물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종족을 번식하고 살아남기 위해 미적행위를 합니다. 수평이 아름다운 깃털로 자신을 진화시킨 것도 숫사자가 머리에 무성한 털로 위엄을 보이게 가꾼 것도 역시 생존을 위한 전략 전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아열대의 꽃들과 새들이 다양한 색과 현란한 장식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가꿀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풍부한 태양과 수분 등으로 과잉성장을 해야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적인 진화를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란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에서 출발하고 미술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결국 ‘미의 기술’인 ‘미술’이란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미술은 이렇게 ‘가장 근원적인 욕망에서 출발한 삶의 기술’입니다.

## 삶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파수꾼으로써의 미술

그러나 미술은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 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유지시켜 주고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중심추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뮤지엄이나 미술관으로 가서 무언가를 보려고 기웃거리는 행위는 바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도구와 목적을 넘어선 또 다른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부조화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출발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즉 내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물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추구하고 그것을 시원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한 불만 등 현실 속에서 만나는 부조화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그것들을 혹시 미술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옹기는 발걸음입니다. 미술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우선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 무엇인가를 봐야겠다는 충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옮기는 발걸음은 의식적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내부에 깊게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넓어 보통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에서 나온 행위보다 무의식에서 나온 행위에 지배된 삶을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적 행위'란 깊은 생각이나 판단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쑥불쑥 행하는 행동들을 말하고 '의식적 행동'이란 이성적인 판단과정을 거쳐 나온 행동을 말합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화 시키는 과정이 사실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삶의 보편적 과제이고 이것을 칼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행동을 점점 이성적으로 판단해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미술입니다. 왜냐하면 미술에서 표현된 상징들은 대부분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상징과 표현들이 우리 안에 잠재 되어 있던 무의식을 깨워주고 그것을 의식화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 삶을 또 다른 차원으로 옮겨주는 힘으로써의 미술

무의식을 의식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점 충동적 행위나 우발적인 행동들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현상들을 직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또 한 집단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면 한 사회가 어떤 동기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미술을 통하여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집단의 대표적 미술은 그 집단의 무의식과 의식이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미술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상징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엿볼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미술은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풀어놓기도 하지만 의식을 무의식 속으로 함몰하거나 유기시켜 버리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 중 마크 로스코나 아실리 고르키 같은 작가들은



자신이 그리고 있던 구체적인 형태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풀어헤치곤 깊은 자기 무의식의 세계로 몰아갑니다. 마크 로스코의 마지막 작품들은 보는 관객들에게 모두의 속에 침잠되어 있는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작가들이 노년이 되어 작품이 단순화되고 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며 무너진 경계에 대한 경험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가 말년에 보여주는 인상과 같이 형태가 문드러진 그림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2부:

### 미술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미술사는 교양을 목적이나 지적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생존의 도구로 일상생활에선 물론 아름다운 삶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힘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12가지 입니다.

#### 1.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도구

모든 미술 작품 속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크고 작은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을 꿈꾸는 큰 욕망부터 사물을 보고 느낀 기쁨을 그대로 풀어놓은 작은 욕망등 다양한 인간의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욕망을 읽어냄으로 오늘 날의 사람들의 욕망을 읽어내고 욕망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미술작품 속에서 그 욕망들을 읽어내는 방법은?

#### 2.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들여다보게 해주는 안경.

사람은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본 방향과 방법을 미술작품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각기 다르게 바라본 세상을 서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한 방법을 풀어놓습니다. 이 이런 해석과 구성방법은 자기네 사회를 만들고 구성한 원리대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 미술작품을 통해 이들이 만든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고 다양하게 구성된 여러 종류의 사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술사로 사회를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3. 내가 어디 서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는 내 삶의 나침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만약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작은 동굴 속이라면 그 동굴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살수 밖에 없습니다. 플라톤은 대중들이 살며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이 동굴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엿볼 수 있는 경험 또다른 동굴 속을 들여다보고 내가 사는 동굴과 어떻게 다른가 엿볼 수 있는 힘을 바로 미술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미술작품으로 과거의 사회도 엿볼 수있으므로 과거와 오늘이란 두 좌표 속에서 찾은 나를 다시 다른 세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에서만만의 좌표가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기본적 좌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미술사의 힘입니다. 그 힘을 현실에서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 4. 돌아가는 세상을 빨리 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

21세기의 세상은 너무나 빨리 급변하게 진행되고 모든게 변합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나 심지어는 친구들간의 센스의 차이도 이 시대를 읽어내는 힘이 만들어 냅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재빠르게 읽고 판단하는 힘을 바로 배운 미술사를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빨리 읽고 판단하는 힘을 어떻게 배우는 거죠?

#### 5. 상대방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읽어내는 힘

어떤 모임에서나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자리에서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될 소질이 없는 순진한 사람까지 종재할 수있는 참모로 키울 수있는 것이 바로 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항상 이 힘을 가진 상대방에게 사람들은 끌려다니게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힘을 미술사로써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 6. 내 마음의 공간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세계에서의 공간을 설계하고 만들 줄 알게 하는 힘

세계는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공간인 생각 속의 세계, 이 생각의 공간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면 이것을 관념의 세계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 세계 물리적인 공간의 세계입니다. 관념의 세계와 물리적 현실적 세계인 이 두 공간은 항상 충돌하고 대립해 이 둘을 조율하고 화합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술가들은 이 문제를 손쉽게 자신의 작품으로 해결하고 때로는 예언자로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작품을 통하여 작가의 마음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세계를 어떻게 구성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공간 구성의 원리와 공간을 운영하고 다루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죠?





## 7. 나의 삶을 아름답고 멋있게 만드는 도구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욕망은 더욱 우리를 굽주리게 하고 삶에 열망은 우리를 애타게 합니다. 행복이란 찾으려 하면 찾을수록 현실 속에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사랑은 그것을 가져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같아서 그것을 늘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작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작은 사물들, 자연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주변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을 미술사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미술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아름다움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이고 모든 미술은 '이것이 나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것이다.'라는 작가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 그들이 느낀 아름다움을 엿보고 그것을 표현한 방법과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어떤 것을 보고 느끼며 얻은 미적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엿보는 것입니다.

## 8. 내 외양을 아름답고 매력있게 만드는 힘

무엇이 나에게 맞는 아름다움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사회 속에서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엿보기로 배웁니다. 직접 경험은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시행착오 등을 통하여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간접 경험은 문학이나 영화, 드라마 혹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간접 경험을 나에게 적용함으로써 나를 찾아가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 늘 무언가 부족하고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이고 두번째로 나는 항상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과 같지 않습니다. 만약 어제의 내가 오늘과 똑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9. 어느 사회구조 속(직장, 학교, 외국사회)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저력

안다는 것 지식이 실제적으로 현실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식이란 것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기도하고, 현실에 적응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론과 실제의 간극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은 땅과 하늘처럼 멀기만 합니다. 이런 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읽는 힘을 미술사를 통해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 작품을 통해 여러 사회를 들여다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를 이해하고 그 다른 차이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 어느 사회 속에 들어가도 그 사회를 한눈에 이해하고 그것을 통찰해 살아남을 수 있는 저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10. 돈을 벌게 해주고 하는 일이나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주는 힘

미술이 돈을 벌게 해준다고요? 사실 미술이 돈을 벌게해주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작가나 그 작가 주변 사람들 예를들어 화랑업자 들입니다. 일반인에게 돈을 벌여주고 사업을 성공시켜 주는 것은 미술이 아니라 미술작품들로 이어진 미술사 입니다.

미술사는 유행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대중사회와 순수미술의 사이가 크고 일정한 계급들의 고상한 취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젠 이 간극이 무너져 미술과 산업사회, 그리고 대중과 소비시장이 연결되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20세기 후반기 미술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오늘을 이해하는 힘은 바로 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요?

11.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해지고 아름답게 해주는 힘.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아름답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어려운 것과 나쁜 일들, 이외의 변수가 현실의 안정을 파괴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안정한 상태보다 불안한 상태나 혼돈스러울 때가 더 많기 때문이고 행복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간이 어느 때 목덜미를 움켜질지 몰라 불안합니다.

미술사는 이러한 불안과 좌절 혹은 절망 속에서 찾은 아름다움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삶의 균형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삶 자체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느끼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12. 단편적인 지식을 지성의 단계로 끌어올려주는 계단

지식인이란 어떤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췄던 사람을 의미하고 지성인이란 여러 전문적 지식을 하나의 눈으로 통합해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식인은 사실 많은데 지성인은 정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식이 전문화되고 그것이 서로 깊이 파고들게 되면서 사이가 벌어져 그것을 통합하는 안목을 갖추기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골이 깊은 지식의 간극을 극복하고 한 눈으로 보는 지성인의 눈을 미술사를 통하여 기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런던시인의 문화학교는 21세기 문화계에서 살아남을 문화전사를 육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열린 강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좌로 영국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날개 달린 눈(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열린 문화의 눈)을 갖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열린강좌

2월 23일 옥스포드 아시모리언 뮤지엄 강좌

2월 9일 미술사란 무엇인가?

1월 20세기 현대문화사 구조로 본 21세기 세계의 전망과 비전

1) 20세기의 세계와 이데올로기

- 1. 이데올로기 시대의 시작
- 2.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싹튼 문화사상
- 3.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신문화사상

2) 한국사회와 이데올로기, 좌파와 우파 대립

- 1. 한국의 전통사회 붕괴와 포스트모더니즘
- 2.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과 이데올로기 집착
- 3. 한국의 21세기를 위한 전망과 비전

일시; 2013년 1월 17일(목요일) 오후 3시

장소; 토튼흙 크라운 퍼브

## 2012년 열린 <전하현 열린 강좌의 주제 >

12월 19일 강연회; 이상한 나라 영국, 앨리스의 미술사

11월 22일 강연회; 21세기에 엘리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의 것

10월 26일 강연회; 현대문화사 강좌/ 유럽과 미국의 문화사 쟁탈전.

10월 5일 강연회; 한국 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영국 사회읽기> 2번째 강연/ 영국사회로 본 한국 사회구조

9월 28일 강연회; 사회문화강좌, 범죄 드라마로 분석한 영국사회

9월 4일 강연회; 에게문명과 아마르나 문명

8월 28일, 2차 <몽크와 데미안 허스트의 102년 만의 만남> 강의

8월 17; 덜위치 갤러리, 네덜란드 미술과 17세기 프랑스의 고전주의

8월 4일; 문화예술강좌/고딕-르네상스의 하이브리드 예술

7월 22일; 문화강좌/Sex & Sexy, Fashion & Passion, Money & Desire

7월 20일; 현대미술 강좌/<몽크와 데미안 허스트의 102년 만의 만남>

6월 29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종말, 그리고 오늘



- 5월 30일; 20세기 문화사 강좌/ 3개의 패러다임
- 5월 12일; 문화기행 강좌/ 리버풀 시티에서 만나는 빅토리안 건축
- 3월 30일; 현대미술과 페미니즘/ 야요이 쿠사마
- 3월 29일; 주영 한국 대사관(런던)에서 강연회
- 3월 22일; 문화산업 종사자를 위한 특강/ 21세기 초두를 이끌 문화, 환상주의 (FANTASISM)
- 2월 28일; 현대미술강좌/ 피카소와 영국의 모더니즘 2차 강좌
- 2월 16일; 현대미술강좌/ 피카소와 영국의 모더니즘
- 2월 15일; 미술사 강좌/ 바르비종파가 바꾼 세상의 풍경들
- 2월 9일;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양강좌/ 여자란 무엇인가?
- 2월 2일; 창조산업 종사자를 위한 2차 강좌/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 1월 21일; 문화와 사회 현상강좌/ 이미지로 읽는 오늘의 사회
- 1월 19일; 창조산업 강좌/감동의 기술, 감동을 시켜야 뜬다!
- 1월 7일; 현대미술강좌/게르하르트 리히터와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전개
- 1월 6일/ 문화예술강좌/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